

여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박 지 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유괴 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에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유괴 범죄의 특성 및 가해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피해자 특성 및 범행 특성에 있어 남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와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1997년에서 2009년 사이 발생한 190건의 유괴 범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의 경우 상당수가 이혼한 상태에서 미취학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자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유괴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경우 미혼에 전과가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대부분 여아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목적에 있어 여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는 상당수가 피해 아동의 친모가 저지른 것으로, 양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유괴를 저지른 남성들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반면, 여성들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더 많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유괴, 약취유인, 부모 유괴, 여성 범죄자, 미취학 아동

[†] 교신저자 :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Tel: 02-2077-7832, E-mail: jsirispark@hotmail.com

2017년 8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8세의 초등 학생 여아를 10대 소녀가 유괴하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어 2017년 9월에는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유괴 범죄는 힘없고 취약한 어린이를 상대로 발생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 지역 사회 및 국가 전체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흉포한 범죄이다. 특히 과거에는 어린이를 유괴하여 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양상을 보였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성적인 목적으로 아이를 유괴하거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등 점차 유괴 범죄의 유형이나 특성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강경수, 김영덕, 2008; Heide, Beauregard, & Myers, 2009). 그러나 유괴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범행 수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곽대경, 2004; Finkelhor, Henly, Turner, & Hamby, 2017).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에 '유괴범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에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원래 환경에서 옮겨 자기나 제3자의 실력 지배 하에 두고 자유를 침해하는 약취, 그리고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유인 등을 포함한 약취·유인죄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는 총 20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경우가 110건으로 약 55%를 차지한다(경찰청, 2016). 이 110건 가운데 검거건수는 99건으로 약 90%의 검거율을 보이는데, 검거된 인원 총 163명 중에 성별 불상 5명을 제외하고 남자가

108명으로 약 68.4%를, 여자가 50명으로 약 31.6%를 차지하였다(경찰청, 2016). 이는 2016년 전국 발생 강력범죄 검거인원 중 여성이 18.6%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치이며, 폭력범죄(상해, 폭행 등) 검거인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인 16.1%와 비교해 봐도 현저히 높다. 미국에서도 Finkelhor, Hammer과 Sedlak(2002)가 유괴 범죄 58,200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성이 저지른 사건이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괴 범죄에 있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국내외를 통틀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곽대경, 2004; Carmody & Plass,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상당 부분 간과되어 왔던 유괴 범죄의 특성에 대해 조사해보고, 특히 여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 가해자가 저지른 유괴 범죄 피해자의 특성(연령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범행의 계획성이나 유괴 목적 등의 범행 수법을 남성 가해자가 저지른 유괴 범죄의 특성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유괴 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및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유괴 범죄의 특성 및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

국내에서 발생한 유괴범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가 남자 피해자에 비해 훨씬 더 많으며, 범행은 단독범이 저지른 것이 대부분이고,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대경, 2004). 범행 동기는 경제적 목적이나 양

육 목적, 성적인 목적, 가정불화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최인섭, 1996). 특히 여성 가해자의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유괴 범죄에 있어 훨씬 높은 이유에 대해, 범행 목적에 있어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유괴 범죄의 비율이 높은 점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곽대경, 2004).

유괴 범죄는 아동기에 있는 피해자의 향후 성장 및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강경수, 김영덕, 2008; Finkelhor et al., 2017). 유괴 범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 받으며, 때로는 유괴 사건 이후 어른에 대한 신뢰를 잃고 부모에게 무력감과 만성적인 분노를 표현하기도 한다(Grief & Hegar, 1993). 구체적으로는 악몽이나 수면 장애, 우울, 불안, 자책, 전반적 두려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집중력의 저하, 학교 수행 저하, 친밀한 관계 형성 등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등을 유괴 범죄의 피해자들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Gibbs, Jones, Smith, Staples, & Weeks, 2013; Hegar & Grief, 1991; Plass, Finkelhor, & Hotaling, 1996).

여성 가해자가 저지른 유괴 범죄의 특성

유괴 범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성별이 주요한 변수라는 주장은 그간 국외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Carmody & Plass, 2000). 특히 범행의 동기나 피해자를 되찾을 가능성 및 그 방안에 있어 유괴 범죄에는 가해자의 성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rief & Hegar, 1993).

가족에 의한 유괴 사건 가운데 25%가 피해자의 생물학적 어머니에 의한 유괴로 집계되었다(Hammer, Finkelhor, & Sedlak, 2002). 이처럼

모르는 사람이나 단순 지인으로부터 발생한 유괴 사건보다는 가족에 의한 유괴 사건에서 여성 가해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경향이 보고되어 왔다(Finkelhor & Ormrod, 2000; Walsh, Krienert, & Comens, 2016). 예를 들어 가족 유괴의 5분의 1은 여성 가해자에 의한 범죄였으나, 낯선 사람에 의한 유괴 범죄의 경우 여성 가해자의 비율은 3% 밖에 되지 않았다(Tillyer, Tillyer, & Kelsay, 2015). Asdigian, Finkelhor와 Hotaling(1995) 역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유괴 범죄는 거의 대부분 남자가 저지른 반면(95%), 아는 사람(가족, 지인 등)이 저지른 유괴 범죄의 경우 47%가 여자가 저지른 범죄였음을 보고하였다. 즉, 유괴 사건 범죄자의 성별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었다.

Beyer와 Beasley(2003)는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유괴 범죄의 동기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즉 남성 가해자들의 경우 물질적 목적이나 성적 목적에 보다 자주 동기화되는 반면, 여성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모성 욕구나 관계 지속, 분노나 복수 등의 이유로 유괴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Boudreaux, Lord, & Etter, 2000). 이처럼 모성적 욕구로 저지른 유괴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특징이다(Ankrom & Lent, 1995). 이러한 동기의 차이로 인해 여성 가해자가 저지른 유괴의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남성 가해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Beyer & Beasley, 2003). 영국에서도 총 191건을 대상으로 유괴범죄의 유형을 나눈 결과, 성적인 목적으로 주로 전과가 있는 가해자들이 저지른 유괴보다는, ‘모성 욕구’의 충족을 위해 전과가 거의 없는 가해자들이 저지른 유괴 범죄 유형에서 여자 가해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Erikson & Friendship, 2002).

범행 동기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에 있어서도 차이가 드러났는데, 자신의 아이로 위장하여 키우기 위한 영아 유괴(infant abduction)의 경우 거의 모두 여성 가해자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며(Boudreaux, Lord, & Dutra, 1999; Burgess & Lanning, 1995), 남성 가해자들보다는 여성 가해자들이 유괴한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더 낮았다(Erikson & Friendship, 2002). 보다 구체적으로, Boudreaux 외(1999)는 미국에서 발생한 총 550건의 유괴 사건 가운데 신생아 유괴의 91%가 여성에 의해 저질러지며, 영아 유괴의 54%, 유아 유괴의 41%, 유치원 아동 유괴의 15%, 초등학교 유괴의 1%, 중학생 유괴의 3%, 고등학교 유괴의 2%가 여성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보고하였다.

유괴 범죄 가해자의 연령에 있어 차이를 보인 연구도 존재하는데, 남성 가해자의 경우 18-29세 사이가 가장 많은 비율(45%)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 가해자의 경우 30-39세 사이가 40%로 가장 많았다(Warren et al., 2016).

Asdigian, Finkelhor와 Hotaling(1995)은 유괴 사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가 100% 남성이었던 반면, 성폭력이 부재한 유괴의 경우에는 남성이 87%, 여성 가해자가 13%를 차지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남성이 저지른 유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체에 외상을 입는 경우가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 피해자가 성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illyer et al., 2015). Beyer와 Beasley(2003)도 남성 가해자들보다는 여성 가해자가 저지른 유괴 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폭력적이라고 보고하였다.

Carmody와 Plass(2000)는 미국에서 발생한 104건의 가족 유괴 범죄를 분석하고,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유괴 범죄가 발생하는 맥락

및 유괴 범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보다 여성일 경우 유괴 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 Plass, Finkelhor와 Hotaling(1996) 역시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유괴 지속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보고했다. 한편,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남성에 의한 유괴 범죄 사건에 비해 가해자가 체포될 가능성이 더 낮았다(Tillyer et al., 2015).

이처럼 국외에서는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유괴 범죄 피해자와의 관계나 폭력성의 정도, 범행 목적 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유괴 범죄에 관한 연구도 매우 드물뿐더러, 여성 유괴 범죄자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성별에 따른 유괴 범죄 특성의 차이점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배경 특성 및 범행 수법에 있어서의 비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괴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는 방안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의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강은영, 박지선, 2009)의 연구수행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자료번호 A1-2009-0114)에서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199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발생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사건 가운데

총 190건이 연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 사건들은 국내 주요 8개 도시 소재 총 16개소의 검찰청에서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로 수집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 포함된 총 190건의 유괴 범죄 가해자의 연령은 평균 37.23세(표준편차 = 9.623)로, 최소 15세에서 최고 70세 사이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10대인 경우가 5명(2.6%), 20대가 34명(17.9%), 30대가 77명(40.6%), 40대가 59명(31.0%), 50대가 11명(5.8%), 60대 이상이 4명(2.1%)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의 연령은 최소 1세에서 최고 19세 사이로, 평균 9.29세(표준편차 = 4.993)이었다. 피해자가 10대인 경우가 82명(43.4%)이고, 10세 미만인 경우가 108명(56.6%)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6세인 경우가 23건(12.1%)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총 190명 가운데 전과가 있는 경우가 107명(56.3%)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전과가 없는 가해자가 83명(43.7%)이었다. 전과가 있는 가해자들의 전과 수 평균은 4.65회(표준편차 = 5.392)로, 전과 1회가 27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전과 2회는 23명(21.5%), 3회가 12명(11.2%), 4회 및 5회 각각 8명(7.5%)이었으며, 6회 이상이 29명(27.1%)이었다.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유괴범죄의 가해자를 중심으로, 여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의 특성을 남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의 특성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및 독립 표본 t-test, 교차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통해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유괴 범죄의 특성을 비교하였고, 유괴 범죄의

가해자 성별을 예측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특히 유괴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특성 및 성별 외의 가해자 특성(연령,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범행의 계획성이나 경합 범죄 여부 등의 범행 특성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유괴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총 190건의 유괴 범죄 가운데 여성이 저지른 사건은 55건(28.9%), 남성이 저지른 사건은 135건(71.1%)이었다. 먼저 여성 유괴 범죄자 55명의 평균 연령은 38.09세(표준편차 = 8.953)로, 최소 20세에서 최고 70세 사이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대인 경우가 5명(9.1%), 30대가 34명(61.8%), 40대가 13명(23.6%), 50대 이상이 3명(5.5%)이었다. 한편, 여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최소 1세에서 최고 18세 사이로, 평균 7.20세(표준편차 = 4.214)이었다. 역시 피해자가 6세인 경우가 11건(20.0%)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가 42명(76.4%)으로 대부분이었고, 10대가 13명(23.6%)이었다.

여성 유괴 범죄자 총 55명 중 대부분(44명, 80%)은 전과가 없었고, 전과가 있는 경우가 11명(20.0%)이었다. 이 가운데 전과 1회가 5명(9.1%), 전과 2회는 3명(5.5%), 3회가 1명(1.8%), 5회가 2명(3.6%)이었다.

다음으로 남성 유괴 범죄자 135명의 평균 연령은 36.88세(표준편차 = 9.894)로, 최소 15세에서 최고 64세 사이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대인 경우가 5명(3.7%), 20대가 29명

(21.5%), 30대가 43명(31.8%), 40대가 46명(34.1%), 50대 이상이 12명(8.9%)이었다. 한편, 남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최소 1세에서 최고 19세 사이로, 평균 10.14세(표준편차 = 5.049)이었다. 역시 피해자가 6세인 경우가 12건(8.9%)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가 66명(48.9%), 10대가 69명(51.1%)이었다.

남성 유괴 범죄자 총 55명 중 대부분(96명, 71.1%)은 전과가 있었고, 전과가 없는 경우가 39명(28.9%)이었다. 이 가운데 전과 1회가 22명(16.3%), 전과 2회는 20명(14.8%), 3회가 11명(8.1%), 4회가 8명(5.9%), 5회 이상이 35명(25.9%)이었다.

가해자 성별에 따른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차이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유괴 범죄의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독립 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표 1 참조).

가해자 및 피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여성이나 남성 가해자들 모두 범행 당시 평균 37-38세 내외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피해자 나이의 경우 여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 보다는 남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 피해자의 평균 나이가 비교적 더 많았다($r = .301$).

더불어 가해자의 전과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성 가해자들보다 남성 가해자들의 총 전과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r = .376$). 한편, 유괴 범죄 발생부터 가해자를 검거하기까지 소요된 일수를 비교해 본 결과, 평균 약 143일이 걸린 여성 가해자들의 경우 평균 약 49일이 걸린 남성 가해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r = .138$).

이어 유괴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특성을 교차분석으로 알아보았다(표 2 참조). 먼저 여아를 대상으로 유괴를 저지른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 가해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유괴를 저지른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 가해자들에게서 두 배 이상 더 많이 나타났다. 가해자와의 관계

표 1. 가·피해자 나이 및 가해자 전과

항목	가해자	M	SD	t
가해자 나이	여성	36.88	9.894	.785
	남성	38.09	8.953	
피해자 나이	여성	7.20	4.214	3.809***
	남성	10.14	5.049	
가해자 총 전과 수	여성	.44	1.102	4.318***
	남성	3.51	5.226	
발생부터 검거까지	여성	142.78	444.453	-2.018*
	남성	49.05	165.873	

* $p < .05$, ** $p < .01$, *** $p < .001$

에 있어, 여성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친모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남성 가해자들보다 약 다섯 배 이상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가해자들은 모르는 아이를 대상으로 유괴를 저지른 경우가 반 이상으로, 여성 가해자들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다.

다음으로 가해자들의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2 참조). 먼저 남성 가해자들의 경우 미혼이 약 반 정도로 여성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반면, 여성 가해자들은 약 반 정도가 범행 당시 이혼한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가해자들의 경우 전과가 있는 경우는 5분의 1에

불과하였으나, 남성 가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수법

이번에는 유괴 범죄 범행 특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3 참조). 먼저, 유괴의 목적에 있어서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분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즉, 여성 가해자들의 경우 반 이상이 양육을 목적으로 유괴를 저질렀으나, 남성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약 10분의 1 정도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반면, 남성이 저지른 유

표 2.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항목	여성	남성	χ^2	ϕ
피해자 - 여아	31(56.4%)	95(70.4%)	3.432	-.134
피해자 - 미취학 아동	23(41.8%)	25(18.5%)	11.236**	.243
가해자 - 모르는 사람	8(14.5%)	71(52.6%)	23.289***	-.350
가해자 - 친부모	33(60.0%)	15(11.1%)	49.470***	.510
가해자 - 미혼	5(9.1%)	66(48.9%)	26.446***	-.373
가해자 - 이혼	27(49.1%)	22(16.3%)	21.960***	.340
가해자 - 전과 있음	11(20.0%)	96(71.1%)	41.497***	-.467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범행 수법

항목	여성	남성	χ^2	ϕ
유괴 목적 - 양육	29(52.7%)	14(10.4%)	40.042***	.459
유괴 목적 - 성	0(0.0%)	36(26.7%)	-	-
가해자 - 범행 당시 비음주	34(61.8%)	56(41.5%)	6.483*	.185
계획적	22(40.0%)	31(23.0%)	5.640*	.172
우발적	17(30.9%)	72(53.3%)	7.892**	-.204
경합 범죄	9(16.1%)	42(31.1%)	4.328*	.151
가해자 현행법 체포	10(18.2%)	48(35.6%)	5.562*	-.171

* p < .05, ** p < .01, *** p < .001

과 범죄의 약 4분의 1 정도가 성적인 목적이었던 반면, 여성 가해자들의 경우 한 건도 해당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 당시 여성 가해자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남성 가해자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 여성 가해자들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더 많았다. 반면 남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는 과반수가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합 범죄에 있어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 가해자의 경우 폭행/상해, 협박, 성폭력범죄 등의 경합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여성 가해자들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한편,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비율은 여성보다는 남성 가해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유괴 가해자의 성별을 예측하는 요인들

이제까지의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

괴 범죄 가해자의 성별을 예측하는 요인을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시 말해서, 종속 변인으로 가해자 성별(여자: 1, 남자: 0)을 설정하고, 이제까지의 분석에서 effect size가 .20 이상으로 moderate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변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Rea & Parker, 1992). 여기에 포함된 독립 변인은 ‘가해자 총 전과 수’, ‘피해자 - 미취학아동’, ‘가해자 - 이혼’, ‘유괴 목적 - 양육’, ‘우발적’ 등 총 다섯 개였다.¹⁾

그 결과, 해당 모형(표 4)은 유의하였으며($\chi^2 = 79.259, p = .000$), 모형의 Nagelkerke의 결정 계수(R²)는 48.7%의 설명력을 드러내었다. 가해자 성별의 예측 정확도 역시 분류 정확도가 83.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즉, 여성 유괴 범죄자들이 남성 유괴 범죄자들에 비해 이혼한 상태에서 유괴를 저지른 경우가 약 4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여성 유괴 범죄자들이 양육을 목적으

표 4. 여성에 의한 유괴 범죄를 예측하는 요인

독립변인	B	S.E	Wald	p	Exp(B)
가해자 총 전과 수	-.639	.171	13.930	.000	.528
피해자 - 미취학아동	.533	.464	1.321	.250	1.704
가해자 - 이혼	1.415	.476	8.845	.003	4.118
유괴 목적 - 양육	1.139	.473	5.786	.016	3.123
우발적	-.930	.428	4.727	.030	.395
Constant	-.627	.342	3.356	.067	.534

-2 log likelihood = 149.379, R² = .341(Cox&Snell), R² = .487(Nagelkerke)

1) ‘가해자 전과 있음’은 ‘가해자 총 전과 수’와 중복되므로 제외하였으며, ‘피해자 나이’는 연속 변수이기는 하나 ‘피해자 - 미취학아동’ 여부가 보다 본 연구의 관심사에 가까우므로 제외되었다. ‘가해자 - 모르는 사람’ 및 ‘가해자 - 친부모’는 ‘유괴목적 - 양육’과 상관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각각 $r = -.431, r = .699$). ‘가해자 - 미혼’은 ‘가해자 - 이혼’과 상호배타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로 유괴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남성 유괴 범죄 자들에 비해 약 세 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유괴 범죄자들의 경우 총 전과 수가 더 많으며,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더 많았다.

논 의

유괴 범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에 대해 잘못된 사실들과 편견이 널리 알려져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Tillyer et al., 2015). 본 연구는 그간 국내에서 매우 희소하게 다루어져 왔던 유괴 범죄,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이 저지른 유괴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남성이 저지른 범죄와 비교하였다. 총 190건의 유괴 범죄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배경 특성 및 범행 수법 등에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에 대해 차례로 논의하였다.

유괴를 저지른 여성, 남성 범죄자들의 특성

유괴를 저지른 여성 범죄자들은 대부분 전과가 없는 이혼 상태의 여성들로,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비교적 나이가 어린 자신의 아이를 대상으로 유괴를 저질렀다. 범행은 상당수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양육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검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많은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괴를 저지른 남성 범죄자들은 대부분 전과가 있는 미혼 상태의 남성들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낯선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유괴를 저질렀다. 양육 목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은 매우 드물고, 과반수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 등을 목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경합 범죄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간 주로 남성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던 범죄 관련 연구 전반에서, 남성 범죄자와는 구별되는 여성 범죄자의 특성 및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폭력 범죄에서 여성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간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박지선, 2016; Carmody & Plass, 2000; Collie & Greene, 2017). 본 연구는 일반 범죄에 비해 여성 가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괴 범죄에 있어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유괴 범죄 대응 및 예방에 있어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유괴를 저지르는 남성의 경우 주로 전과가 많은 미혼의 3-40대 남성이 모르는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이 저지르는 유괴 범죄의 방지를 위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한 유괴 범죄 뿐만이 아닌 범죄 유형을 막론하고 이미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라는 큰 틀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반면, 유괴를 저지르는 여성들은 3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대부분 전과가 없고 이혼 상태로 피해자의 친모이며 양육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자가 저지르는 유괴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비록 자신의 아이라 해도 유괴는 엄연한 범법 행위라는 인식과 함께, 이혼 과정이나 아이에

대한 양육권 다툼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유괴라는 범죄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교육과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범죄 발생 이후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외상을 겪을 수 있는 피해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먼저 남성에 의한 유괴 범죄의 피해자들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의해 유괴를 당하고 폭행/상해, 협박, 성폭력 범죄 등의 경합 범죄 피해를 동시에 겪은 경우가 비교적 더 많았다. 따라서, 피해 내용이 복합적이고 그 후유증 또한 무력감, 자책, 두려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여성에 의한 유괴 범죄의 피해자들의 경우, 특히 평균 7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친모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괴 사건 이후 어른, 더 나아가서는 사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고 부모에게 만성적인 분노를 표현하거나 향후 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에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유괴 범죄가 아동기에 있는 피해자의 향후 성장 및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외 유괴 범죄 연구 결과와의 비교

본 연구 결과는 그간 주로 국외에서 진행되어 온 여성 가해자가 저지른 유괴 범죄의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와 상당 부분 일맥상통한다. 영국에서도 여자 가해자들 대부분 전과가 거의 없으며, 여성 가해자들이 유괴한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더 낮았고(Erikson & Friendship, 2002), 미국 역시 가해자가 여자인

경우 유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Carmody & Plass, 2000; Plass et al., 1996).

특히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국외 연구 결과(Asdigian et al., 1995; Finkelhor & Ormrod, 2000; Tillyer et al., 2015; Walsh et al., 2016)가 국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드러낸다.

또한 본 연구는 국외 유괴 연구에서 여성 가해자들이 주로 양육을 목적으로 유괴를 저지르는 반면, 남성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성적 목적에 보다 자주 동기화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Beyer & Beasley, 2003; Boudreaux et al., 2000; Erikson & Friendship, 2002).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여성 가해자들이 모성적 욕구로 저지른 유괴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행이 계획적이라는 결과에 부합한다(Ankrom & Lent, 1995).

본 연구 결과, 남성 가해자의 경우 폭행/상해, 협박, 성폭력범죄 등의 경합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여성 가해자들보다 더 많았다. 이는 범행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가해자들에 반해 남성 가해자들은 성적 목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대부분 전과가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비율은 여성보다는 남성 가해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남성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행의 약 반 정도가 우발적이라는 결과와도 관련이 있는 동시에,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남성에 비해 체포될 가능성이 더 낮다(Tillyer et al., 2015)는 국외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가정폭력과 유괴 범죄

납치나 유괴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의 무사 귀환을 위해 일반 수사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수사기법이 요구된다(박동수, 2010).

여성 유괴 범죄자들의 약 반 정도가 범행 당시 이혼한 상태였으며, 이는 남성 유괴 범죄자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괴 가운데서도 특히 부모 유괴는 종종 부모의 결혼 생활에서의 폭력과 갈등, 파탄이 그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Boudreaux et al., 2000; Gibbs et al., 2013). 실제로, Plass 외(1997)는 부모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 가운데 23%가 범행을 저지르기 바로 전 해에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했으며, 18%는 가정 내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아이를 유괴하는 엄마 가운데 스스로의 폭력 피해나 아이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다(Hegar & Grief, 1991). 또한 상대방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유괴하기도 한다(Boudreaux et al., 2000). 때로는 양육권 분쟁 중에 부모 유괴가 발생하기도 하며,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한 분노나 배우자를 상처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유괴하기도 한다(Hegar & Grief, 1991).

더불어, 부모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약 3분의 1 정도가 어린 시절에 스스로 신체적, 성적 학대의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하였다(Plass et al., 1997). 이처럼 부모 유괴가 가정 폭력의 결과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유괴 범죄의 예방, 특히 여자가 저지르는 유괴의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 폭력,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에서는 여성 가해자 55건(28.9%)의 범행을 남성가해자 135건(71.1%)의 범행과 비교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검거된 인원 중 남자가 68.4%, 여자가 31.6%를 차지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이다(경찰청, 2016).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에서 199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발생한 유괴 범죄로, 최신의 국내 유괴 범죄 동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향후에는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유괴 사건의 특성 및 여성 가해자가 저지른 유괴 사건에 대해 분석하여, 본 연구 결과와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국내에서 1997년에서 2009년 사이에 발생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1명 이면서 성별이 명시된 경우만이 연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공범에 의한 유괴 범죄 사건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국내에서 발생한 유괴 범죄 전체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유괴 피해자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괴 범죄의 역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범죄가 피해자에 미칠 발달상의 후유증을 평가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Boudreaux, et al., 2000).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다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범죄자, 피해자의 특성 및 범행 수법을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간 주로 남성 범죄자에 편중되어 상당 부분 간과되어 온 여성 범죄자들의 특성에 대해 차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특히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괴 범죄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수, 김영덕 (2008). 어린이 유괴범죄 사례를 통한 대책방안. 한국유아체육학회지, 9(1), 71-84.
- 강은영, 박지선 (2009).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경찰청 (2016). 2016 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 곽대경 (2004). 납치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61-95.
- 박동수 (2010). 인질강도 및 납치사건 수사 사례분석 및 수사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경찰연구, 9(4), 103-136.
- 박지선 (2016). Gender Differences among juvenile offenders in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y functioning. 한국여성심리학회지, 21(3), 537-554.
- 최인섭 (1995).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nkrom, L. G., & Lent, C. J. (1995). Cradle robbers.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64(9), 12-17.
- Asdigian, N., Finkelhor, D., & Hotaling, G. T. (1995). Varieties of non-family abdu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2(3), 215-232.
- Beyer, K. R., & Beasley, J. O. (2003). Nonfamily child abductors who murder their victims: Offender demographics from interviews with incarcerated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 1167 - 1188.
- Boudreaux, M. C., Lord, W. D., & Dutra, R. L. (1999). Child abduction: Aged-based analyses of offender, victim, and offense characteristics in 550 cases of alleged child disappearance. Journal of Forensic Science, 44, 539-553.
- Boudreaux, M. C., Lord, W. D., & Etter, S. E. (2000). Child abduction: An overview of current and historical perspectives. Child Maltreatment, 5, 63 - 71.
- Burgess, A. W. & Lanning, K. V. (1995). An Analysis of Infant Abductions. Alexandria, VA: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 Carmody, D. C. & Plass, P. S. (2000). Family abductions: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offender gender. Gender Issues, 18, 58 - 63.
- Collie, C. J. R. & Greene, K. S. (2017). Examining offender, victim and offence characteristics in cases of stranger child abduction: an exploratory comparison of attempted and completed cases using publicly available data from the UK.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5, 73-82.
- Erikson, M., & Friendship, C. (2002). A typology of child abduction event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7, 115-120.
- Finkelhor, D., Hammer, H., & Sedlak, A. J. (2002). Nonfamily abducted children: National estimates and characteristics.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Justice.
- Finkelhor, D., Henly, M., Turner, H., & Hamby, S. (2017). Family abduction in a national sample of US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67, 403 - 407
- Finkelhor, D., & Ormrod, R. (2000). *Kidnapping of juveniles: Patterns from NIBR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Gibbs, M. L., Jones, W. P., Smith, S. D., Staples, P. A., & Weeks, G. R. (2013). The consequences of parental abduction: A pilot study with a retrospective view from the victim. *The Family Journal*, 21, 313 - 317.
- Grief, G. L. & Hegar, R. L. (1993). *When parents kidnap*. New York: The Free Press.
- Hammer, H., Finkelhor, D., & Sedlak, A. J. (2002). *Children abducted by family members: National estimates and characteristic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Hegar, R. L. & Grief, G. L. (1991). Abduction of Children by Their Parents: A Survey of the Problem. *Social Work*, 36(5), 421-426.
- Heide, K. M., Beauregard, E., & Myers, W. C. (2009). Sexually motivated child abduction murders: Synthesis of the literature and case illustration. *Victims and Offenders*, 4, 58-75.
- Plass, P., Finkelhor, D., & Hotaling, G. T. (1996). Family abduction outcomes: Factors associated with duration and emotional trauma to children. *Journal of Youth & Society*, 28(1), 109-130.
- Rea, L. M. & Parker, R. A. (1997). *Designing and Conducting Survey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San Francisco, CA: Jossey - Bass.
- Walsh, J. A., Krienert, J. L., & Comens, C. L. (2016). Examining 19 years of officially reported child abduction incidents (1995 - 2013): Employing a four category typology of abduction. *Criminal Justice Studies*, 29(1), 21 - 39.
- Warren, J. I, Wellbeloved-Stone, J. M., Hiltz, M. A., Donaldson, W. H., Muirhead, Y. E., Craun, S. W., Burnette, A. G., Millspaugh, S. B. (2016). An investigative analysis of 463 incident of single - victim child abductions identified through federal law enforce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0, 59-67.

1차원고접수 : 2018. 10. 23.

심사통과접수 : 2018. 12. 17.

최종원고접수 : 2018. 12. 27.

A study on the child abduction committed by females

Jisun Par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ven though child abduction invokes extreme fear of the victim and their family as well as the fear of their community and nation, there is only a paucity of research on child abduction and perpetrators.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abduction committed by females, and compare them with those committed by male perpetrators. We compared 55 child abduction cases committed by female perpetrators with 135 child abduction cases committed by male perpetrators between 1997 and 2009. Compared to male perpetrators who committed child abduction, a significantly greater number of female perpetrators who committed child abduction were divorced at the time of offense, abducted preschoolers, and abducted male children. By contrast, male perpetrators who committed child abduction were more likely to be single, to have criminal record, and to abduct female children than female perpetrators. A majority of female perpetrators abducted their own child, mainly for the purpose of bringing up. By contrast, a significantly greater number of male perpetrators targeted victims who were unknown to them, and child abduction committed by male perpetrators was more likely to be unplanned.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made.

Key words : kidnapping, abduction, parental kidnapping, female offenders, preschoolers